

#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How to Recognize a Good Church

신앙 성장 시리즈 31

##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How to Recognize a Good Church

© RBC Ministries

인 쇄 : 2008년 11월 28일

발 행 : 2008년 11월 30일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편집·교정 :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소망사

(02)392-4232

발간사/5

**좋은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신봉해야 합니다 ①** ..... 7

- 성경론 - 성경에 대한 믿음 / 11
- 신론 -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3
- 그리스도론 -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 15

**좋은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신봉해야 합니다 ②** ..... 21

- 구원론 - 구원에 대한 믿음 / 23
- 성령론 - 성령에 대한 믿음 / 25
- 교회론 - 교회에 대한 믿음 / 26
- 종말론 -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 / 30

**좋은 교회는 영적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 35

- 전도 강조 / 36
- 선교 사역 / 37
- 거듭난 제직회 / 38
- 성경적인 설교 / 40

**이상적인 교회 구성원의 다섯 가지 자질** ..... 43

- 서로 사랑합니다 / 43
- 서로 돌봅니다 / 44
- 서로 용서합니다 / 45
- 서로 참아 줍니다 / 45
- 순종합니다 / 46

**나쁜 교회의 특징** ..... 49

- 역사적 시각 결여 / 54
- 성경에 대한 왜곡된 견해 / 55
- 그리스도인의 분열을 조장 / 57
- 사소한 문제에 집착 / 58
- 과거의 오류로 회귀 / 59



이 책은 Richard W. De Haan이 Day of Discovery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강연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De Haan은 1964년부터 1984년까지 라디오성경선교회의 회장이자 강사로 헌신하다가 2002년 6월 주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발간사

##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기독교인들은 다 좋은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나쁜 교회에 다니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영원한 운명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다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보다 더 잘 쓰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책자를 읽고 배운 다음에는 이 책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다 알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좋은 교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자를 내도록 수고하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1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 상 복 목사





## 좋은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신봉해야 합니다①

오늘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세계에 종교가 너무 많아 당황스러워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저마다 자기네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 종교의 방식에 따라 개종자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여러 교파로 나뉘어 심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어느 종교가 진리의 길인지 어떤 선택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어느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며 자신들이 지지할 가치가 있는 교회인지 가끔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책자에서 필자는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교회를 발견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실생활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회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을 지닌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당신에게 확신시켜줄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을 먼저 지적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기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고, 열정과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 기본적인 것이 결여되었거나 부정되고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는 모임을 돕거나 후원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교회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서 시작합니다. 그 교회의 교리가 성경적입니까? 그 교회의 교리에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철학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어떤 교회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그랜드라피즈프레스 신문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던 전직 신학교수가 최고위 주교들 중 한 명으로 임명 받았습니다. 그 교수를 주교로 임명한 뒤 대주교는 ‘우리 교회의 영광스런 일 중 하나가 색깔이 다른 많은 의견을 항상 우리 안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임명 사건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첨예한 논란거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주교는 그가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예수의 동정녀 잉태와 부활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진리로 믿기보다는 보다는 상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임을 믿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런 신학자들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기독교의 본질은 김빠진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인성, 그의 사역, 기본적인 성경 말씀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나 혹은 찾고 있는 교회가 이런 면에서 단호한 태도를 지닌 교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식별하려면 그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건전합니까? 좋은 교회는 아래의 교리 항목들을 올바르게 지녀야합니다.

- 성경론(성경에 대한 믿음)
- 신론(하나님에 대한 믿음)
- 그리스도론(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 구원론(구원에 대한 믿음)
- 성령론(성령에 대한 믿음)
- 교회론(교회에 대한 믿음)
- 종말론(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

위에 열거한 교회 교리의 핵심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 성경론 - 성경에 대한 믿음

좋은 교회란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임을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도움 없이 눈먼 채로 손으로 더듬거리며 진리를 찾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진리를 찾아 장님처럼 더듬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써서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으로 온전한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니라 (딤후 3:16-17)

16절의 “하나님의 감동”은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쓴 저자는 단지 펜을 들었을 뿐이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문자로 나타난 완전영감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문자로 나타난 영감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이 성경의 저자들을 너무나 세심하게 인도하여 심지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선정도 성령께서 다스렸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저자들을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저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도 진리임을 확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완전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것은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동등하게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가득 찬”이란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완전영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영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그리스어 학자 가우센이 내린 것입니다 “영감은 거룩한 성령이 오래된 거룩한 성경말씀의 저자들에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심지어 그들이 사용한 단어들을 선택함과 모든 탈자와 오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휘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다.”

좋은 교회의 특징은 성경이 영감으로 된, 온전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 신론-하나님에 대한 믿음

좋은 교회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 교회의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거부한다면 교리 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근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라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은 그릇행하는 자

를 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인식시키지 못한다면 성경적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또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심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목회자는 온전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 6:4). 하나님에게 맞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는 그 분을 삼위일체 즉 아버지, 아들, 성령 - 구별되는 세 인격이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 삼위일체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들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들은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에 있어서 세 분은 동일하셔서 하나로 결속되어 있기에 세 명의 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 그리스도론 -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좋은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세 번째 열쇠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당신의 충성과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회의 신앙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진실로 신이며 또한 진실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요한복음의 첫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주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일뿐만 아니라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사실은 빌립보서 2:5-8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지상에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 힘들었고 배고팠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입니다. 미스테리 같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만약 교회가 주님의 절대적인 신성과 진정한 인성을 부정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며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론이 정확한 교회는 또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마리아는 동정녀였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통고한 후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고 말했습니다 (눅 1:31-34).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라고 말한 것은 그 때였습니다(35절).

어떤 신학자들이 여러분에게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신학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분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사실임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죄 없음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묵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하고 이미 존재하던 3위1체의 두 번째 인격은 사람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생명을 잉태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영원한 말씀이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기로 태어났어도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은 평범한 인간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개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또한 그의 죄 없는 인

간성을 증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었다면 그 분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죄인으로 결점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죄성을 받았고 부모들은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죄성을 받았으며 그렇게 거슬러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타락한 이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의 관계와 그 결과 때문에 결점을 가진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타락한 자손의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그 분도 아담의 죄와 결점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도 죄인이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벧전 1:19).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나님에 대해 썼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죄 없음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고후 5:21). 우리의 죄 짐을 지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론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론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성경말씀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고전 5: 3-4).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론 관점에서 올바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여 친교를 나눌 교회를 식별하는 한 방법은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까? 인성도 믿습니까? 동정녀 탄생도 믿습니까? 죄 없는 삶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이므로 누구든지 이것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좋은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신봉해야 합니다②

내 집 같은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건물에 끌리고 다른 이들은 교회의 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 프로그램에 매료되거나 가장 인상적인 용모와 인격과 말솜씨를 갖춘 목회자에 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매료하는 예배 의식 진행 순서를 지닌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성 때문에, 위치 때문에 또는 회중 때문에 교회에 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의 초대에 응하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교회의 교리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그

교회가 무엇을 믿고 가르치느냐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건물과 장엄한 성가대, 열변을 토하는 목회자를 자랑하지만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고 성령의 권능과 임재가 결여된 교회에 다니기 보다는 오히려 오래되어 낡고 부서진 건물에서 제대로 조율이 안 된 피아노에다 성가대도 없이 말을 더듬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몇 가지 교리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준으로 좋은 교회를 구별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에 더해서 좋은 교회들이 지녀야 할 핵심 교리들을 살펴봅시다.

- 구원론(구원에 대한 믿음)
- 성령론(성령에 대한 믿음)
- 교회론(교회에 대한 믿음)
- 종말론(세상 마지막에 대한 믿음)

## 구원론 - 구원에 대한 믿음

좋은 교회는 구원론 즉 구원의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견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8절-9절 말씀처럼 좋은 교회는 구원은 그리스도만을 믿는 가운데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완전히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분명히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와 교회출석, 선한 삶,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런 것들이 구원을 받기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구원받은 결과로 따라오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증거이고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10절)

영원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며 하나님의 아

들이신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여 인간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완전한 삶을 살았고,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지금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교회등록, 세례, 도덕적 생활, 자선 활동 같은 좋은 일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믿음 위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주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살지 않았던 삶에,  
내가 죽지 않았던 죽음에,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의 죽음에,  
나는 나의 모든 영원을 걸었네



## 성령론 - 성령에 대한 믿음

“좋은 교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답함에 있어 교회는 성령에 대해 믿고 가르치는 것 즉 성령론에 대한 분명한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때때로 “하나님의 인격 중 경시당하는 인격”으로 불려왔고 여러 면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령은 또한 삼위일체의 3위중 가장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이 누구인지 그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단지 사람의 양심을 깨우치는 감화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 사람 속에 프로그램된 어떤 종류의 힘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니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하며 함께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으로써의 성

령은 많은 중요한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성령은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사도들을 통해 역사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를 확인시켜 줍니다(요 16:8). 그는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요 3:5). 그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세례를 주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줍니다(고전 12:13). 성령은 그리스도인 개개인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고전 6:19). 그는 죄를 억제합니다(살후 2:7). 그리고 믿는 자들을 준비시켜 효과적인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엡 5:18). 그렇습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내주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편안하게하고, 인도하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 교회론 - 교회에 대한 믿음

좋은 교회는 교회 자체에 대하여 가르치고 믿는 것 즉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교

회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믿는 자들이 모임을 말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 할 때는 민족이나 피부색, 신분 혹은 교파의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면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1-23)

제가 말하는 보이는 교회란 믿는 자들의 모임 즉, 예배와 교육, 친교, 전도 그리고 교회 성례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좋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차이를 잘 구별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구성원은 그 교

회의 교인들이나 혹은 그 교파만이 유일하게 진실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특정한 교회의 표지를 붙이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 된 유일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볼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돌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세워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히 10:24-25). 신실한 말씀 선포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와 더불어 우리의 영적 삶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인

당신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당신은 혼자서 성경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쓴 책을 읽으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을 등한시 하는 것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만약 교회 출석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가정교회를 여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쁘거나 다른 어떤 정당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종말론-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

좋은 교회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지막 관점은 종말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즉, 종말론에 대해 교회가 분명한 견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원대한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처음 오셨다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정녀를 통한 탄생, 죄 없는 삶, 육체의 부활, 승천은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긴 세월에 걸쳐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입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1)

그리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하2:14)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6),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17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쳤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주를.  
우리는 그 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가난한 마구간에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를.

우리는 그 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천사와 인간과 마귀와 모든 자연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는 그 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 장례 행렬을 중단시킨 분을.

자신의 손을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에 얹어 그에게 평생 계속되던 밤을 제거하고 한낮의 빛을 주신 분을.

우리는 그 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모든 일을 완수하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외친 분을.

그가 다시 오면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우리 구주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속자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 할 것입니다. 영원히!

복음주의 안에서까지도 마지막 때에 대한 견해가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 차는 분열이나 분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념은 다양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인 것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서로 사랑합시다.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다는 말씀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다시 오신다는,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부정하는 어떤 교회도 좋은 교회의 판단 기준에 미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에 더하여 좋은 교회는 천국과 지옥의 실재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곳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기초하여 그들은 즐거움으로 그들의 영원한 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지상에 존재하는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의 슬픔을 잠재워 줍니다.

좋은 교회는 믿는 자들이 천국이라 부르는 곳을 믿을 뿐 아니라 지옥이라 불리는 실제 장소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랑이 많고 온유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천국과 지옥에 대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9:48). 그리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눅 12:45)

만약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천국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비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천국과 지옥 두 장소에 대하여 믿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의 교인입니까? 당신은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합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 돕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 좋은 교회는 영적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내 집 같은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들도 꼭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법을 계속 공부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교리들 이외에 올바른 교회가 지니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특성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도 강조
- 선교 사역
- 거듭난 등록 교인
- 성경적인 설교

이 네 가지 특성을 자세하게 점검해봅시다.

## 전도 강조

좋은 교회는 방황하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일의 중요성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눅 19:10).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소년이나 소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할 막중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전도를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교회는 사람들의 육체적 물질적인 어려움에 깊은 사회적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교회의 주된 임무가 되고 전도는 뒷자리로 밀려나면 우선 순위에 혼란이 생깁니다. 좋은 교회의 확실한 징표는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올바른 교회란 예배 때마다 예외 없이 “제단 앞으로 초청하기”를 한다거나 혹은 전도 총동원 주간을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기바랍니다. 이런 일들도 훌륭한 일입니다만 교회

는 다른 방법들로도 전도의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인도하는 성경공부, 모임에서 개인적인 구원의 간증, 라디오나 텔레비전 사역, 가정 방문 활동 그 외에 지역사회에 적합한 다른 선교 활동들로 이러한 필요성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항상 새로운 수단과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에 담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항상 동일해야 하지만 전달하는 방법은 교회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선교 사역

복음전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선교입니다. 좋은 교회는 강력한 선교사 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세계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16:15).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승천하기 바로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좋은 교회는 선교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 너무나 본교회 중심적이며 배타적으로 자기들의 관심사에만 사로잡혀있다면 - 그 교회는 복음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에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 거듭난 제직회

전도 지향적이고 세계 선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지니는 것에 덧붙여서 좋은 교회에는 거듭난 (구원받은) 제직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제직회의 역할은 당신이 그 교인들과 동질화될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만약 제직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면 (좋은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높은 명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일지라도

도) 조심하기바랍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거듭나지 않은 남녀들을 제직회로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접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 그들을 제직회로 받아들이거나 교회의 일에 발언권을 주는 것은 교회의 영적 순결함에 얼룩을 남기고 원칙에서 벗어나 타협하는 것이며 교회의 권능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고후 6:14-17)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한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배타적인 “영적 클럽”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영적 클럽”이라면 그곳은 모두 텅 비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표어를 좋아합니다. “저를 조금만 참고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인 즉,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스러운 성자들이 모여 서로 칭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고, 예배와 교훈과 친교와 봉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함과 동시에 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확실한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장로와 집사가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자격에 대해 썼던 것입니다 (딤후 3:8-13).

### 성경적인 설교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 설교가 성경적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신실하게 설교하는 곳입니



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1-5)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교회를 찾을 때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실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강단 위에서 하는 설교가 변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귀를 만족하게 하는 그저 도덕적인 설교에 지나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단순히 설교자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뒷받침하는 가운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어린이를 위한 “우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위해 “딱딱한 음식”도 있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교회를 찾기 힘듭니다. 바울이 예언한대로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때가 올 것입니다 (딤후 4:3-4).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설교보다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합니다.

말하기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관련사역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 기관의 대변인은 누구의 감정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몹시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기 있는 주제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청중들이 자기들에 대해 좋게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적인 인도를 받으려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즐거운 생각으로 평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훈계와 바로 세움은 받지 못합니다.



## 이상적인 교회 구성원의 다섯 가지 자질

좋은 교회 알아보기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상적인 교회의 구성원의 다섯 가지 자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진정한 친교에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없애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친교는 참된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 갑니다.

## 서로 돌봅니다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믿는 개인과 몸의 지체를 비교하여 이런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5-26).

돌봄이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외로운 사람을 방문하며 아픈 사람을 섬기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여 보임으로써 우리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라는 성경의 훈계를 지킵니다. 슬픔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늘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줍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개개인이 모두 진정으로 돌봄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 서로 용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친교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  
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2)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믿는 자들 내부에서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영혼을 죽일 수 있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서로 참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엡 4:2) 함께 걷기를 지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려면 우리는 참을성 있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껴안아야만 합니다.

조급함과 초조함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어떤 교인들은 남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참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등을 두드려줄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심을 잃기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순종합니다

우리는 종종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는 그 앞의 21절 말씀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적절한 선의 권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22절), 교회의 교인들은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히 13:17). 서로 성공적으로 섬기

는 비결의 관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마지막 부분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태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

이상적인 교회 안에는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이 너무 빼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롭게 반응하며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겸손한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서로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서 실천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까지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서면 당신이 그 문제를 놓고 무언

가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친교와 교육과 예배와 봉사에 참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 나쁜 교회의 특징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단지 “종교적 진리”라는 말을 언급만 해도 확실하게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 강하기에 마음을 바꾸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의 극단적 경우 당신은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믿는 한 무엇을 믿든지 정말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종교적 진리에 관해서는 당신이 그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종교적인 생각이 진리이고 어떤 생각이 거짓임을 올바르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주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기준자를 줍니다. 저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에 다다를 때 - 제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지 - 저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참된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 할 수 있고 발견되어야만 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다 참되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새롭고 궁극적인 종교적 진리를 지녔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단들은 역사적인 기독교를 왜

곡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크나큰 위협에 처하게끔 합니다.

이 집단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끌어내면서 교회가 지닌 약간의 실패와 잘못을 구실로 교회를 공격하곤 합니다. 조심하지 않거나 제대로 구별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비슷한 건물에서 모임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운명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적인 의견이나 종교 집단과 대면하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 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재무부 요원들은 강도 높은

직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의 한 부분으로 그들은 위조지폐 감별법을 배우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위조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이유는 진짜와 확연히 대조되는 가짜를 즉각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단 종교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그들의 거짓되고 위험한 교리에 대해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참되지 않은 것과 마주쳤을 때 이를 곧바로 간파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 속의 진리에 아주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고 그러면 진리에 정통하게 되어 그 어떤 가짜도 곧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진한 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나 무슨무슨주의로 잘못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듣자마자 자동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완전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이해한다면 그는 구원의 계획에 인간의 행위가 관계있다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하여 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잘못 이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는 이 “복된 소망”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않고 재림이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 외에는 재림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눈에 가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참된 것에 정통한 사람이 됩시다!

유통되는 지폐 중에 위조지폐가 끼어있는 것처럼 기독교계에도 진리 속에 거짓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지폐에 철저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가

르침인 성경의 교리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아주 친숙한 신자라면 누구나 거짓신앙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저는 이단종교를 구분해내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참 기독교의 특징을 잘 아는 것과 함께 거짓 종교의 특징을 검토해보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류를 더욱 금방 알아채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과는 합치되지 않는 이단종교의 신념인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역사적 시각 결여
- 성경에 대한 왜곡된 견해
- 그리스도인의 분열을 조장
- 사소한 문제에 집착
- 과거의 오류로 회귀

### 역사적 시각 결여

얼마 전에 어떤 집단들이 출현하여 자신들만 진리

를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따라야한다고 확신에 찬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그들보다 거의 1900년 앞선 교회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빛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어둠속에 빠져 있었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항상 적재적소에 있었습니다. 루터, 틴데일, 웨슬리 형제들, 칼빈 및 그 외에 다른 위대한 신학자들과 개혁가들이 참된 믿음을 보존하고 성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을 바쳤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몇몇 거짓 지도자들은 옛 신학자들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자신들만이 드디어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 성경에 대한 왜곡된 견해

이단종교들의 두 번째 특성을 봅시다. 이단 추종자들은 자주자주 성경을 왜곡합니다. 비록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집단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기존 성경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고는 새로운 신

의 계시를 선언합니다. 성경의 옆에다 다른 책들을 붙여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집단 중 일부는 성경 특별 해석집을 출판합니다. 그리고는 추종자들이 성경을 있는대로 읽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출판한 해석집에 따라 해석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보통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심오하고 모호해서 그 집단에서만 제공하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이 성경의 비밀을 벗겨줄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하거나,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최근에 받았다거나,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원전으로부터 번역한 것이라고 하거든 그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기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혹한 시련과 경험 속에서 시도되었고, 시험을 거치면서 진리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추가적인 계시나 비밀스런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그리스도인의 분열을 조장

이단종교의 세 번째 특성은 그리스도인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 하나 된 것을 느낍니다. 그러한 동행에서 성경 해석이나 종교적 생활에서의 사소한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논쟁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은 성경을 믿고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립니다. 만약 어떤 교인이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다니는 교회가 믿음의 원리를 충실하게 신봉하고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분열과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기를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흉악한 이리들”로 지칭하면서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좃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거짓 선생들에 대항하는 말을 했습니다 (행 20:29-30).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로 믿는 자들을 열심히 권면했습니다(3절). 그리고 로마에 있는 믿는 동료들에게 거짓 선생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롬 16:17-18)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비난을 쏟아내거든 그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 사소한 문제에 집착

역사적인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어떤 집단들은 그들이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며 종교적인 목마를 타느라고 너무 바빠서 성경의 계시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잃습니다. 사도 바

울은 디모테에게 “우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딤후1:4).

탁월한 지식으로 당신에게 감명을 주려고 하거나 구원을 받기위해서는 당신의 믿음에다 약간의 행위를 보태야 한다고 당신에게 확신시키려고 하는 등 작은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믿음이나 종교적인 생활에 관한 사소한 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삼위일체 혹은 예수님의 재림 같은 중요한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 과거의 오류로 회귀

많은 거짓 선생들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가 잘못된 교리라고 거부한 것을 자기들의 믿음을 섞어서 되살리려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옛 아리안 논쟁을 재개하거나 율법주의자로 되돌아가 구원은 부분적으로는

노력하여 얻는 것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삼위 일체나 예수님의 진정한 인성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옛 이단종교로 되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공의회에서 만났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혼란을 가중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중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들의 확산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것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혹은 책자로 혹은 여러분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이단종교의 다섯 가지 특성을 잘 검토하십시오. 이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신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평가 기준입니다. 진리 자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이 다섯

가지 오류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가짜를 만날 때 그것을 금방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구원을 얻는 방법에 관한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인가를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흘리심으로써 그는 우리의 죄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 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  
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이러한 생명이 오늘 바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  
니다!

- 1 절망에서 희망으로
-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 3 오 신실하신 하나님
- 4 복 있는 사람
- 5 균형 있는 가정생활
- 6 왜 살아야 하나?
- 7 행복한 결혼생활
- 8 남자다운 남자
- 9 여자다운 여자
- 10 걱정 없이 살고 싶다
- 11 다시 찾은 사랑
-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 14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 16 결혼의 약속
- 17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 18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 19 균형있는 기독교
- 20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 21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 22 교회 지도자의 자격
- 23 갈등 해결의 방법
- 24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
- 25 종교나 그리스도나 무엇이 다른가?
- 26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 27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 28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 29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
- 30 금보다 귀한 것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뒷 표지의 현금 안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양식」 「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안내

청원 및 헌금자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우 편번호				H · P																										
구 분	부 수	월	부	구독기간:	년 월~ 년 월																									
	①신규 ②주소변경 ③부수변경 ④재신청 ⑤취소		헌금입금은행 : ( )은행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신청부수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